

찾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현장 행보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현장 점검
- 대전지역 수출 김 가공공장 현장 점검

강 장관은 1월 26일(금)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1리 마을회관을 찾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대상지를 점검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어촌지역 300곳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해 본격 추진 중이다.

충남 서산시 팔봉권역은 지난 1월 9일(화)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앵커(Anchor) 조직*과 함께 사회혁신 실험, 어촌스테이션(Station) 등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가로림365 행복 스테이션(Station), 쉼표 하우스(House), 야영장 건립을 비롯하여 어항안전환경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며 생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 주체

강 장관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어촌신활력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지역주민과 앵커조직이 ‘원팀(One Team)’이 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대표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강 장관은 대전 대덕구 소재 (주)성경식품을 방문해 수출 김 가공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현안 청취 등 소통하였으며, 지난해 수산식품 최초 김이 수출 1조 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업체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담당 부서 <어촌신활력>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 장	공석 (044-200-6170)
		담당자	사무관	조승래 (044-200-6174)
담당 부서 <김가공공장>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희정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장용호 (044-200-5481)

